

광주 빈곤층 60% 폭염성 온열질환 노출

광주지역 빈곤층 상당수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다수는 단전유에 등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등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24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 시민연대'가 최근 '올해 여름철 빈곤층 에너지 주거환경 실태조사(3차년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0명 중 60%에 달하는 인원이 어지럼증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시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서울·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지역 등 각 지역별로 20세대씩 모두 160세대를 방문해 설문 및 현장방문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광주는 조사 대상자 20명 중 10명(복수응답)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어 ▲근육통·근육경직 4명 ▲두통 3명 ▲호흡곤란 3명 ▲구역질 및 구도 2

■에너지 시민연대 주거환경 실태조사

어지럼증·두통·호흡곤란 등 호소

에너지 복지정책 몰라 홍보 절실

명 ▲수면의 운동 장애 2명 등의 순이다.

광주지역 조사대상 가구 대다수가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전기료 연체시 내려지는 단전조치를 저소득층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단전유예에 대해 잘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0명 중 10명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단전유예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2명이 수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제도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20명 중 18명이 알지 못한다고 답

했다.

이들이 짐통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방시설로는 선풍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에어컨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에너지복지정책 우선순위로 쿨존·바우처·현물 지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제품 및 난방기기 교체 3명씩 ▲가능에너지 설비 지원 2명 ▲단열공사 2명 ▲조명기기 교체 2명 등의 순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대상자 중 80%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이 중 63%가 독거가구였다. 사회 복지상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58%, 차상위계층가구 11%, 장애인가구 8% 등이었다.

조사대상 전체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년도는 1990년 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이 83%에 달했다. 가구 내 실내온도는 평균 27.8도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주택유형은 절반에 이르는 4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역 빈곤층 상당수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애인 주차구역서 주차 방해 50만원 과태료

복지부, 오늘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외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

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우체국 희망복지' '5K 운동' '희망 우체통' 위기가정 세대에 희망의 빛 밝힌다

어려운 이웃 발굴 지원 사업

광주시 북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세대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올 들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차원에서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을 비롯한 5K 운동, 희망우체통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으로, 지역 복지문제는 지역민들이 해결한다는 지역공동체 정신의 발로에서 추진하게 됐다.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하면서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4개월간 61세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했다. 이중 5세대

는 700만 원의 긴급지원을 하게 됐으며, 나머지 세대는 사실 확인 후 추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27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 중인 '5K 운동'은 올해 상반기까지 63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모금된 기금은 각 동별 지역 실정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문화동·일곡동·건국동에 설치·운영하는 '희망 우체통'에는 이날 현재까지 6건의 위기가정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돼 총 110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공적지원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민간 지원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이 행복한 복지 1번지 북구 실현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 남구 저소득층 자녀 드림스타트 가족영화관람 행사

광주시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CGV광주터미널점에서 저소득층 세대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 가족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CGV광주터미널점과 '가족과 함께하는 무비 체험' 업무 협약을 맺은 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가족 등 694명을 대상으로 가족 영화관람 행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가족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 관람할 수 있다.

영화 관람을 위해선 각 가정에 배달된 영화관람 쿠폰(1인당 1개)을 가지고 영화관을 방문, 쿠폰을 영화 티켓으로 교환한 뒤 관람하면 된다.

다만, 부모는 자녀를 동반해야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어려운 이웃에 써 달라" 취업 축하 쌀 기증

광주 동구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중장애인·저소득층 등 60세대에 나눠줄 예정이다.

최광희 동구 도시관리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회에 애초그만할 기증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구발전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최 국장은 송일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뒤 1982년 공직에 입문, 광주시와 동구청 등에서 근무했다. /이종행기자golee@

최 국장은 지난 24일 동구로 부임한 뒤 취업 축하 화환 대신 20kg 짜리 쌀 60포대(1200kg)를 받은 뒤 이를 동구 희망복지지원단에 기부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최 국장이 기증한 쌀을 13개 동(洞) 주민센터에 전달, 독거노인·중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최 국장은 송일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뒤 1982년 공직에 입문, 광주시와 동구청 등에서 근무했다. /이종행기자golee@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으로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사정상 급매 - 1억 6천만원(8/3일까지)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임대

현재, 박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